

SNS 아동 미술 전시 댓글에 나타난 성인 중심 평가 담론 연구 : 아동발달 적합성과 온라인 비판 문화의 충돌을 중심으로

이지연
경인교육대학교대학원 미술교육과
e-mail:jiyeonwithu@naver.com

Adult-Centric Evaluation Discourse in SNS Comments on Children's Artwork: The Clash Between Developmental Appropriateness and Online Critical Culture

Ji-Yeon Lee
Dept. of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요약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에서 보호자가 아동의 미술 작품을 공유하는 행위가 보편화되면서, 해당 작품에 대한 성인 이용자들의 댓글 비판이 사회적 현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아동미술발달이론 및 비판적 담론분석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SNS 댓글 공간에서 아동 작품을 평가하는 성인 중심 기준의 문제를 분석하였다. 로웬펠드의 미술발달단계론과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 발달이론을 이론적 기반으로 삼아, 성인의 심미적 기준이 아동발달 맥락을 배제한 채 적용되는 구조를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온라인 댓글에는 성인 기술 수준을 아동 작품에 투영하는 발달 무지형 비판, 교육 투자 가치 판단으로서의 공리적 비판, 부모의 SNS 과시 행동에 대한 반감이 아동 작품 평가로 전이되는 대리 비판의 세 유형이 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창의적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며, 아동미술교육 및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차원에서 개입 필요성을 시사한다.

1. 서론

소셜미디어 플랫폼, 특히 인스타그램·스레드 등에서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의 미술 작품 사진을 게시하고 공유하는 행위는 이미 대중적 일상이 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흔히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감정 표현, 육아 커뮤니티와의 연대, 혹은 아동의 성장 기록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의 댓글창에서는 종종 아동 작품의 완성도를 성인 미술의 관점에서 평가하거나, 기법상의 미숙함을 지적하거나, 부모의 교육 방식을 간접 비판하는 성인 이용자들의 언술이 등장한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인터넷 문화의 일면으로 치부되기 어렵다. 아동 작품을 성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행위는 아동의 발달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반영할 뿐 아니라, 아동의 창의적 표현 활동을 둘러싼 공적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화적 텍스트로 기능한다. 특히 해당 게시물을 아동이 직접 접하거나, 부모를 통해 간접적으로 인지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외부 평가는 아동의 미술 활동 동기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첫째, SNS 아동 작품 게시물의 댓글에 나타나는 성인 중심 평가 담론의 유형은 무엇인가. 둘째, 이러한 담론은 아동미술발달이론의 관점에서 어떤 문제를 내포하는가. 셋째, 이 현상이 아동학 및 교육학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며, 어떠한 대응이 요구되는가.

2. 이론적 배경

2.1 아동미술의 발달적 특수성

아동미술은 성인미술의 미완성 단계가 아니라, 발달적으로 구분되는 독자적 표현 체계이다. Lowenfeld와 Brittain(1987)은 아동의 미술 표현을 난화기(2-4세), 전도식기(4-7세), 도식기(7-9세), 또래집단기(9-11세), 의사실기(11-13세)로 구분하며, 각 단계는 인지·정서·지각 발달과 긴밀히 연동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전도식기 아동이 인물을 두족류(頭足類, tadpole figure)로 표현하는 것은 미술적 무능의 산물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 스키마 중 가장 현저한 부분(머리와 발)을 표상하는 인지적 전략이다.

Gardner(1980) 역시 아동의 미술 작품을 U형 발달 곡선으로 설명하며, 학령 전후기 아동의 작품에는 성인이 상실한 '상징적 풍요로움'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 작품의 가치는 사실적 재현 능력이나 기술적 숙련도가 아니라, 발달 단계에 적합한 표현의 자유로움과 상징 사용 능력에서 찾아야 한다. 아동미술교육의 평가 원리도 이를 반영한다. 국내 누리과정 및 2022 개정 초등 미술과 교육과정은 결과물보다 과정, 창의성, 자기표현의 진정성을 평가 준거로 강조한다. 이러한 발달 적합 평가 원칙은 학교 교육 현장 내 규범으로 수용되어 있으나, 공식 SNS 담론 공간에서는 체계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2 비초츠키의 근접발달영역과 평가의 윤리

비고츠키(Vygotsky, 1978)는 아동의 현재 독립적 수행 수준과 지원을 받을 때 도달 가능한 수준 사이의 간격을 '근접발달영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 ZPD)'으로 개념화하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아동 발달을 촉진하는 평가는 현재 수행 수준을 절대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발달 가능성과 맥락을 고려한 비계(scaffolding) 제공을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인이 아동의 현재 작품을 자신의 심미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행위는, 아동의 ZPD를 무시하고 도달 불가능한 기준으로 수행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한다. 더 나아가 공개적 비판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외부 평가는 아동의 내재적 동기를 외재적 보상 또는 회피 동기로 전환시키는 '평가 위협(evaluation threat)'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Ryan & Deci, 2000).

2.3 온라인 댓글 문화와 비판적 담론

Suler(2004)의 '온라인 탈억제 효과(online disinhibition effect)' 이론에 따르면, 익명성과 비동시성을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 환경은 현실에서 억제되던 비판적 발언을 촉진한다. 이 탈억제 효과는 SNS 댓글 공간에서 아동 작품에 대한 무비판적 평가 언술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Bourdieu(1984)의 문화자본론은 심미적 취향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계급적 산물임을 밝힌다. 성인 이용자들이 아동 작품에 적용하는 '좋은 그림'의 기준은 중립적이지 않으며, 특정 교육 경험 및 문화 계층의 심미 규범을 내면화한 결과물이다. 이 규범이 아동 작품 평가에 무반성적으로 적용될 때, 그것은 발달 담론이 아닌 문화 권력의 행사가 된다.

3. SNS 댓글에 나타난 성인 중심 평가 담론의 유형

3.1 발달 무지형 비판

가장 빈번하게 관찰되는 유형은 아동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성인의 기술적 기준을 직접 적용하는 발언이다. 이는 "얼굴 비율이 안 맞는다", "원근법이 없다", "색감이 조잡하다"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언술은 Lowenfeld의 발달단계론이나 아동미술의 상징적 표현 원리에 대한 이해 없이, 성인 사실주의 미술의 관점을 단일 기준으로 삼는 오류를 범한다. 발달 무지형 비판은 종종 "미술 학원에 보내야겠다"는 식의 교정 처방과 결합하여 나타난다. 이때 아동의 작품은 그 자체로 완결된 표현이 아니라 수정이 필요한 결핍의 산물로 재정의된다. 이러한 프레임은 아동미술교육의 핵심 가치인 '과정 중심성'과 '표현의 자율성'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3.2 공리적 비판

두 번째 유형은 아동의 미술 활동을 미래 역량 개발이나 교육 투자 효율성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공리적 담론이다. "이 나이에 이 정도면 모자란 거 아닌가", "미술 교육에 돈을 낭비하는 것 같다" 등의 언술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아동의 미술 활동을 탐색·표현·놀이의 영역이 아니라 성과 측정의 대상으로 환원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 관점을 반영한다. 공리적 비판은 한국 사회 특유의 교육열 담론과 결합하여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아동의 작품을 부모의 교육 능력에 대한 증거로 독해하는 이 시선은, 아동을 독자적 표현 주체가 아닌 부모 교육의 산물로 객체화하는 담론적 실천이다.

3.3 대리 비판형 전이

세 번째 유형은 부모의 SNS 행동 자체에 대한 비판 감정이 아동 작품 평가로 전이되는 형태이다. 자녀 작품 공유를 '과시'나 '허영'으로 프레임한 후, "별로인 작품을 대단한 척 올린다"는 식으로 아동 작품의 질을 부정하는 방식이다. 이 유형에서 아동 작품은 실질적 평가 대상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부정적 감정 표출의 매개체로 기능한다. 이는 아동권리 침해의 관점에서 특히 문제적이다. 유엔 아동권리 협약(UNCRC) 제13조는 아동의 표현의 자유를, 제16조는 아동의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고 있다. 아동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인 갈등의 대리 전장으로 소환되는 상황은 이 두 권리를 동시에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한다.

4. 교육학적 함의 및 과제

4.1 아동미술교육에서의 발달 적합 평가 원리 재확인

본 분석이 드러내는 일차적 과제는 아동미술의 발달적 특수성에 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는 것이다. 학교 교육 현장에서 통용

참고문헌

- [1] Lowenfeld, V., & Brittain, W. L. (1987). Creative and mental growth (8th ed.). Macmillan
- [2] 교육부 (2022). 2022 개정 초등학교 미술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 [3] 미술활동에 대한 사회의 기대와 가치의 내면화 : 한국 초등학교 아동의 그림 그리기 경험의 분석과 탐구(2007), Vol.8 No.2,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 pp.77-100
- [4] 아동미술발달 이해를 위한 사회문화적 관점의 학문적 접근들 (2012), vol13,no.1,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 pp.103-123

되는 발달 적합 평가 원칙은 학부모 교육 및 지역사회 문화 교육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자녀의 작품을 SNS에 공유하는 양육자가 해당 작품의 발달적 의미를 게시물 내에서 맥락화하는 실천은, 성인 이용자의 발달 무지형 비판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4.2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온라인 댓글 윤리

온라인 탈억제 효과가 아동 작품을 겨냥한 무분별한 평가 언술을 촉진하는 구조적 조건임을 고려할 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정보 판별 능력을 넘어 ‘댓글 윤리’ 및 ‘온라인 표현 책임’을 포함해야 한다. 특히 아동이 관련된 콘텐츠에 대한 평가 발언이 해당 아동의 심리 발달과 권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성인 대상 교육이 요청된다.

4.3 양육자 역할과 아동 디지털 노출의 윤리

자녀 작품을 공개 SNS에 게재하는 행위 자체도 재고가 필요하다. 아동의 동의 없는 작품 공유는 아동권리 관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공개 게시물이 비의도적으로 아동을 성인 비판의 대상으로 노출시키는 위험을 내포한다. 양육자는 공유 전 아동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고, 공개 범위를 조정하며, 부정적 댓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실천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SNS에서 아동 미술 작품을 향한 성인 중심 평가 댓글을 아동미술발달이론 및 비판적 담론분석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세 가지 담론 유형 - 발달 무지형 비판, 공리적 비판, 대리 비판형 전이- 을 도출하였다. 이 유형들은 공통적으로 아동을 독자적 발달 주체이자 권리 보유자가 아닌, 성인의 기대와 갈등이 투영되는 대상으로 환원하는 담론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동미술교육의 발달 적합 평가 원리를 학교 밖으로 확산시키는 사회적 노력, 온라인 댓글 윤리를 포함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강화, 그리고 양육자가 아동 콘텐츠의 디지털 노출에 대해 보다 성찰적 실천을 취하도록 돕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아동의 창의적 표현이 발달 맥락 속에서 존중받는 온라인 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아동권리와 미술교육 양 차원에서 긴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체계적인 텍스트 수집 및 빈도 분석 없이 현상 기술과 이론적 논의에 의존한 탐색적 연구라는 한계를 지닌다.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 SNS 댓글 코퍼스에 대한 질적·양적 내용분석을 통해 담론 유형을 보다 정밀하게 분류하고 출현 빈도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